

마음 열기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시다.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조약을 맺었을까요 맺지 않았을까요?

말씀 나누기 여호수아 9장 1-6절, “분별하는 방법”

우리에게는 항상 대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고, 비록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한 번 실패했지만 회개하여 아이성까지 정복했습니다. 이를 보고 들은 주위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지만, 그들 앞에는 여전히 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그 대적은 **첫째, 눈에 보이는 대적입니다.** 가나안의 여러 왕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일심으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1-2절).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은 상태와 모습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여 싸울 수 있고, 싸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대적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무서운 대적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진멸해야 할 가나안 히위 족속이었으나, 살기 위해 꾀를 내어 헤어진 옷과 기운 신발, 곰팡이 핀 떡과 찢어진 가죽부대를 신고 멀리서 온 사신처럼 꾸며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임수에 넘어가 조약을 맺었고,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탄도 동성애와 같은 죄를 인권이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 하게 꾸밈니다. 혹은 세상의 물질과 유익을 신앙보다 우선 순위로 두도록 성도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대적을 분별하고,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교만이 가장 무서운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기브온 족속의 정체를 눈치채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7절). 하지만 기브온 족속이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굽신거리자 교만해졌고, 눈앞의 이익과 정욕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11절). 과거 애굽의 종이었던 자신들이 이제 종을 부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마음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분별하는 자가 되고, 어떠한 대적이 오더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대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14절).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거나, 내 욕심대로 하고 싶지만 주님이 막으실까 봐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야 합니다. 참된 응답은 신비한 음성이나 환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거나 환경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참된 응답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이방 민족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과 정욕에 눈이 멀어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을 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셋째, 큰 것을 바라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몇 명의 종, 헤어지고 낡은 물건들, 곰팡이 난 마른 떡과 같은 작은 것에 얽매어 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매일 만나가 임했고, 40년간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동행할 자와 갈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 33:14). 오늘 우리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길 없는 광야도 길이 되고, 원수라도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작은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가장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별되며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맺음말.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이며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대적,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교만과 육신의 생각이 가장 무서운 대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대적을 분별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며,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써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다.

1.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인가요?
2. 대적인지 모르고 가까이 했다가, 그것이 나에게 위협과 가시가 되었던 적이 있나요?
3. 대적을 분별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교만과 욕심의 대적에 넘어갔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2. 대적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회개합시다.
3.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대적을 분별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0월 바이블로 가이드 (2) : 레위기 (하)

10월 바이블로의 주제는 “거룩한 부르심과 고난 속에서 빛나는 믿음”입니다. 이번 주(2주차)는 레위기 17-24장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법’을 짚어볼 것입니다.

- 거룩에 관한 법(17-26장):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19:2). 거룩은 신비로운 감정이 아니라 먹고 입는 것, 성적 순결, 부모 공경, 그리고 가난한 이웃과 나그네를 돌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 절기와 안식년·희년: 안식일과 7대 절기(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리고 땅의 안식을 위한 안식년과 모든 빚을 탕감하고 자유를 선포하는 희년은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주 묵상 포인트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은혜’입니다. ‘거룩(קָדַשׁ, 카도쉬)’의 본뜻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적 가치와 기쁨을 따르지 않고,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FAMILY 나눔

2026년 10월 4일

분별하는 방법

여호수아 9장 1-6절

